PDF EDITION

BIBLIA 이스라엘 따라걷기

holinesscode@me.com

저작권 없음 공지

본 PDF 문서에 실린 글, 그림, 사진 등 BIBLIA에서는 하나님께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기록한 글과 찍은 사진입니다. 사전에 BIBLIA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상업적인 용도의 사용은 허락하지 않습니다.

재배포 환영

본 PDF 문서는 BIBLIA 독자 및 www.biblia.co.il 회원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배포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나 SNS를 비롯한 사회통신망에서 유포할 수 있습니다.
그러나, 한가지 소박한 바램이 있다면, 다운로드 후 재배포 할때에 BIBLIA를 명기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의 이런 작은 배려가 큰 힘이 됩니다.

❖ 대형교회 참조

본 BIBLIA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소식, 그리고 학술적인 소식에 쉽게 접근하기 힘든 미자립 교회나 소형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.
혹,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대형교회에서 이 자료들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면, 알아서 BIBLIA에 후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. **후원에 대해서는 www.biblia.co.il 에서 About BIBLIA 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**

사마리아 사람들

| 이익상 holinesscode@me.com

Article at a Glance

흔히들 북왕국 **이스라엘**의 멸망(722BCE, 왕하 17:24-41)과 함께 북왕국에 살던 사람 모두가 국외로 강제 이주를 당했고, 텅 빈 **사마리아** 지역은 이방인들로 채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만, **유대**인 역사가 **요세푸스**의 기록에 의하면, **사마리아** 지역에는 여전히 북왕국의 사람들(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)이 **그리심** 산에서 **여호와**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고 살고 있었습니다(Ant 9.290). 그러다가 **페르시아**의 통치를 받던 시대에 이르러 **세겜**을 중심으로 옛적부터 있었던 토착 종교의 관습과 **여호와**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서로 섞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이것이 **스룹바벨**, **에스라**, **느헤미야** 시대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**유다**의 사람들과 갈등의 원인이 된 것이지요. **사마리아**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대하기 시작했거든요. 적어도 이것이 **요세푸스**가 **사마리아**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.

사마리아 사람들과 **유다** 사람들의 갈등은 하나님이 주신 땅 너머, **알렉산드리아**에서도 있었습니다. **알렉산더** 대왕이 죽은 후, **알렉산더**의 뒤를 이어 **이집트** 지역을 통치하였던 **프톨레미 1세**가 **팔레스타인** 땅을 정

사마리아 오경.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한다.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 가운데 역사와 예언서들은 모두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기록된 유다 사람들의 기록으로 편파적이라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생각이다.

복하면서 **유다**와 **사마리아**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**이집트**로 포로삼아 끌고 갔습니다. 기원전 3세기 중반에 기록된 **이집트**의 파피루스에 **이집트** 땅 안에 **"사마리아"**라고 이름 지어진 마을이 있었다고 하니, **이집트**에서 **사마리아** 사람들의 영향력도 대단한 듯합니다. 그런데, 이 둘의 종교적인 갈등은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.

기원원 3세기 **프톨레미 2세**의 시대에 온 세계의 사상을 하나로 모아보리라는 거대한 꿈을 가지고 **그리스**어로 온 땅의 철학과 사상을 번역하는 일이 한창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엄청난 계획 안에는 **여호와**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의 신앙의 기준인 구약의 두루마리들도 있었지요. 그런데 **"토라"**라고 불리는 율법이 조금씩 다른 두가지 판본이 있는 겁니다. **유다** 사람들이 읽는 **토라**와 **사마리아** 사람들이 읽는 **토라**가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, 부분적으로 조금씩 있는 전통의 차이를 놓고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했습니다. **프톨레미 2세**는 **유다**의 지도자들과 **사마리아**의 지도자들을 놓고 이 문제에 대해 토론을 붙였습니다.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서 누구의 기록이 더 참된 지를 놓고, 그리고 **예루살렘**이 여호와 하나님 종교의 중심지인가, 아니면 **그리심**산이 그러한가를 놓고 신학적인 언쟁을 벌인 것이지요 (Ant 13.3). **유다** 사람들의 **토라**,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읽고 있는 **모세 오경**이 승리(?)하였습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그래서 "우리 (유다 사람들) 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귄위가 있다."는 선에서 끝났으면 좋았을 것을! **사마리아** 사람들의 **토라**는 참되지 않다는 이유로 **사마리아**의 학자들을 살해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. **팔레스타인** 땅 바깥에서 벌어진 이 이야기는 곧 **팔레스타인** 땅으로 전해졌고, 단지 종교적인 입장의 차이를 넘어서, 그 둘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 버리고만 것이지요. **사마리아**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, 그리고 지역적인 앙금이 결국 **헤롯** 대왕이 죽은 뒤, 12년째 되던해 극단적인 행동으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(야곱의 우물 참조.).

사마리아 사람들은 네개의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. 첫번째는 오직 **여호와** 하나님 만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는 것이고, 두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오로지 단 한 명의 예언자만을 보내주셨는데, 그가 **모세**이다라는 것입니다 (유대인들에게는 모세 이외에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지요). 세번째는 거

룩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오로지 **모세 오경**이고 그 **모세오경**은 **사마리아**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(“사마리아 오경”이라 불립니다. 이들은 흔히들 말하는 예언서, 역사서, 성문서, 지혜문학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.), 마지막 네번째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예배의 성소는 **그리심**산이라는 것입니다.

현재는 52가정(대략 800명)의 **사마리아** 인들이 **이스라엘**에 살고 있습니다. 기원후 4-5세기까지만 해도 그 수가 대략 150만명이었지만, 많은 수가 **이슬람**과 **기독교**로 개종을 했거든요. 그러나 끝까지 **사마리아**에서 **여호와** 하나님의 신앙을 지킨 이들의 대부분은 **그리심**산과 **홀론**(Holon)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, **홀론**에 살고 있는 **사마리아** 사람들은 **그리심**산에도 자기 집을 두어서 스스로 **사마리아**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. 매년 유월절이 되면, 이 모든 가정들이 한 곳. 그들이 말하는 오직 유일한 예배 장소인 **그리심**산에 모여서 **유월절** 양을 잡으며 제사를 드리며, 한 가족이라는 것 그리고 **여호와** 하나님이 선택한 한 민족이 바로 자신들이라는 것을 되새깁니다.

그리심산. 돌이 있는 마을은 옛 세겜의 성터이며, 그 뒤로 나무가 듬성듬성 심겨져 있는 그리심산이 보인다.